

**플랫폼
협동주의**

Platform
Cooperativism

양석원

목차

I.	들어가는 말	04
II.	플랫폼 자본주의 VS 플랫폼 협동주의	05
III.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Worker-owned cooperatives)	06
	1. 이탈리아, Doc Servizi	07
	2. 프랑스, 코오파남(Coopaname)과 사업고용협동조합(BEC ;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	08
	3. 벨기에, 스마트(SMart)와 유럽 네트워크	09
	4. 핀란드, Lilit	11
IV.	참여형 소비자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Prosumers and 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11
	1. 이탈리아, 음식과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참여적, 지역적, 자기 조직적 협동조합	11
	2. 프랑스, 이동성과 협동조합 형태의 개인과 개인 간 거래시장	12
	3. 스페인, 협동적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화 및 커뮤니티 허브	12
V.	플랫폼 노동과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Platform work and worker-owned cooperatives)	13
VI.	소비자 플랫폼과 다중이해관계자 회사 (Consumer platforms and multi-stakeholder cooperation)	14
VII.	정리하는 말	15
	참고문헌	16

플랫폼 협동주의

Platform
Cooperativism

양석원

'SVS 인사이트'는 국내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들어가는 말

디지털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은 단순히 소비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차원을 넘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나아가 정치,사회,문화에 근본적인 변화의 동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차지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의 수요와 서비스의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관리하는 디지털 매개자 역할을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경제 활동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제공해 주었다. 여기까지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한쪽 면이라면, 다른 면에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기존 법률과 규제를 벗어나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면이 존재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는 부정적인 동인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사회계약을 훼손하는 숨어 있는 플랫폼 노동이 존재하며,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이익이 플랫폼을 소유한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그들이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을 독점 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현재 디지털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을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은 자동화된 작업 할당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관리 책임을 이전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와 제공자 사이의 “매칭 시스템”과 같은 좁은 의미로만 쉽게 정의한다. 국제노동기구의 리포트에서 ‘기술 변화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술 혁신과 그 파급효과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국제노동기구 ILO, 2016)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의 방법 중 하나로 같은 자료에서 임시직 경제(gig economy)⁰¹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플랫폼협동조합의 출현을 소개하고 있다.^(‘일의 미래 이니셔티브, Future of Work initiative’,ILO)

다음 리포트는 디지털 플랫폼이 단순히 소비자와 제공자의 매칭 시스템을 넘어, 장점은 유지하면서 플랫폼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은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사고를 검토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협동/협력 플랫폼’을 지향하는 플랫폼 협동주의(Platform Cooperativism)의 주장과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01 온디맨드 경제라고도 불리는 비표준화된 고용이 많은 노동환경

II. 플랫폼 자본주의 VS 플랫폼 협동주의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 사고에 대응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관리하고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의 보호와 참여를 보장하는 대안적 사고의 중심에 “플랫폼 협동주의(Platform Cooperativism)”가 있다. 플랫폼 협동주의라는 개념은 뉴스쿨 뉴욕(The New School) 트레버 솔츠(Trebor Scholz) 교수가 만든 것으로 그 후, 언론인 네이션 슈나이더(Nathan Schneider)와 함께 대중화한 개념이다. 플랫폼 협동주의는 우버, 에어비엔비 등에서 확인되는 기술적인 장점은 활용하되 기술이 가져오는 혁신과 효율성의 개념을 재정의 하여 플랫폼이 만드는 가치가 참여하는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협동조합과 같은 다른 형태의 소유 구조를 기술과 결합하자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트레버 솔츠는 2014년 온라인에 게재한 글(Platform Cooperativism vs. the Sharing Economy)을 통해 대안으로의 협력(cooperation)에 관해 이야기하며,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상상력에 전문적인 협력과 협동의 형태를 담아보자.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Worker-owned cooperative)은 플랫폼 기반의 앱을 통해 구현될 수도 있다.”

네이션 슈나이더는 웨어러블(shareable.net)에 기고한 글(Owning Is the New Sharing)을 통해 플랫폼 자본주의를 해결할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협동조합은 기업에 기여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도록 도와주기에, 플랫폼이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 악화에 협동조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이 정의를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한다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프로토타입)을 매개로 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노동자, 사용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을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할 때, 노동자 및 소비자를 위한 도구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서비스 제공과 제품 판매를 위해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한다.(sutton, 2016)”

이러한 정의는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플랫폼 협동조합의 넓은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모델들이 지니는 미묘한 차이를 충분히 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에, 법적, 재정적 및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협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Gorenflo, 2015)”

“택시기사들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실시간 승차공유 중개 플랫폼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택시기사협동조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Scholz, 2014)”.

트레버 솔츠(Trebor Scholz)는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가지 원칙을 명시했다.

- ① 이용자의 플랫폼 공동 소유, ② 플랫폼 이용자에게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상업적 서비스의 경우), ③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플랫폼 간 자유로운 정보 이동, ④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간 대화, ⑤ 플랫폼 이용자와 운영자의 업무 공동결정, ⑥ 플랫폼과 노동자 간 경쟁 등 관련 법적 보호 및 노동법 강화, ⑦ 플랫폼 간 이동 가능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보장급여 지급, ⑧ 플랫폼상 자의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⑨ 작업장 감시 제한, ⑩ 로그오프(log-off) 권리

특히 10가지 원칙 중 플랫폼 자본주의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플랫폼 이용자와 운영자의 업무 공동결정, 양질의 노동조건, 집단을 통한 조직 구성 및 소유를 플랫폼 협동주의는 핵심 가치로 추구한다. 운동으로서 플랫폼 협동주의는 디지털 플랫폼에 방점을 찍는 것을 넘어서 조직의 정체성에 더 무게를 둔다.

기존 설립했던 협동조합들도 플랫폼 협동주의에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랜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들도 디지털 경제의 공유 소유권 및 지배 구조에 관한 실험 그리고 플랫폼 기술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영리 조직과는 다른 기업가정신을 품은 새로운 세대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관점에서 기존 협동조합의 새로운 실험을 바라볼 것이다. 특히 유럽의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과 소비자, 다중 이해당사자 협동조합의 사례를 플랫폼협동주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다.

III.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Worker-owned cooperatives)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 주체인 노동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소유자들은 매개체를 제공할 뿐이기에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결과 노동자는 소위 회색 지대(grey zone)에 속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된 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법은 새로운 형태의 일의 방식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은 양질의 근로 조건과 사회 보장 체계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의 모델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는 이탈리아 Doc Servizi 협동조합, 프랑스 사업고용 협동조합⁰²(BEC)과 코오파남(Cooperand), 그리고 스마트(SMart) 에코시스템을 만든 스마트 벨기에(SMart Belgium)가 있다.

다음 둘러보기에서는 각각의 협동조합 모델들이 시작하게 된 배경과 조직,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기존의 조직들과 다른 특성과 접근방식을 가졌는지 설명할 것이다.

둘러보기

1. 이탈리아, Doc Servizi

1990년 베로나에서 설립된 Doc Servizi(<https://www.docservizi.it/en>)는 전통적 노동자 협동조합의 발전된 형태인 자주관리 플랫폼 협동조합(self-management platform cooperative)이다. Doc Servizi는 음악, 예술, 연극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협력을 통해 예술 문화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현재 Doc Servizi의 회원은 약 6,000명이고, 이탈리아에 34개의 지부, 파리에 1개의 지부 두고 있으며 2019년 약 5,8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설립 시부터 Doc Servizi의 구성원은 종속노동자(subordinate workers)⁰³로 고용되기에 안정성과 동시에 활동의 자율적 관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노동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이점과 함께 자영업자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고용 계약⁰⁴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유효하기에 사회 보장과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이 계약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Doc Servizi 협동조합은 회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더 해갔다. 예를 들어 행정, 회계 및 계약 관리, 이벤트 및 프로젝트 컨설팅, 여행사, 회원 상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사업이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Doc Servizi는 효율적이고 기술 기반의 내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한다. Doc Servizi의 플랫폼은 확장 할 수 있고 복제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에 네트워크의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 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조합 회원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로열티를 부과하고,

02 사업고용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프리랜서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사회보험,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의 운영은 사업자 직원의 수수료(7~15%)로 운영하며 3년 이내에 개인 창업을 유도” 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음.

03 이탈리아 민법 제2094조는 “종속 노동의 제공자란 보수의 대가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하에서 제공하면서 기업 내에서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04 이탈리아에서 준종속 노동자(lavoratore parasubordinato)란 법적 의미에서의 종속성은 없지만 종속 노동자와 사회적, 경제적 유사성(즉, 경제적 종속성이나 계약 입장의 취약성 등)을 가지는 자를 가리킨다. 코코코 Co.Co.Co(Collaborazioni Coordinate e Continuate: 계속적으로 조율되는 협력적노동관계)는 노동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독립 노동 제공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주자의 경제 활동에 지속해서 필요한 기능적 관계를 보존하는 개념이다.

워킹그룹을 만드는 등의 용도로도 사용된다. 디지털 플랫폼은 점점 각 구성원이 자신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경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협동조합의 구조적 테두리 안에 남아있게 한다. 이처럼 각 구성원의 자율성과 전문 영역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Doc Servizi는 자주관리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2. 프랑스, 코오파남(Coopaname)과

사업고용협동조합⁰⁵(BEC ;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

코오파남(www.coopaname.coop)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업고용협동조합(BEC ;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 CAE ; Coopérative d'Activités et d'Emploi)이다. 2004년에 만들어진 코오파남은 현재 파리, 일드프랑스 지방과 르망시에 6개 지부를 두고 있는 노동자 협동조합⁰⁶(SCOP:Sociétés coopératives et participative)이다. 약 850명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약 1,0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프랑스에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업고용협동조합으로 다양한 업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파남(Coopaname)은 전통적인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종속(subordination)’관계가 아닌 ‘새로운 노동관계의 실험실’로서 자율적인 노동과 협력적인 경제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고용협동조합은 고립된 자기 고용 기업가(self-entrepreneurs)들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에게 공유 조직인 협동조합의 틀 안에서 프로젝트를 테스트하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장 창업하기보다는 사업개발 가능성을 먼저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주요 참여 대상이다.

사업고용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업자를 지원하는 기업가적 플랫폼이다. 예를 들면 창업자는 법률, 행정 및 회계 관리, 창업자교육(예: 커뮤니티케이션, 마케팅, 영업 등)에 도움을 받으며, 다른 창업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경험을 한다. 운영 측면에서 사업고용협동조합에 새롭게 참여한 창업자는 “사업자 직원”의 지위 획득을 통해 법적 지위와 사회적 보호의 이점을 얻는다. 창업자는 자신의 사업 관리(브랜드명, 고객관리, 가격정책 등)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다중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다양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프랑스 수도 파리의 사업고용협동조합이 부족하여 정부 기관과의 대화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파리에 코오파남이 설립됐다. 2004년에 만들어져서 전체 사업고용협동조합 운동의 대표성을 지니는 가운데 그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오파남은 개인적 사업개발의 위험성 최소화, 집단적 사업자정신(협력과 상호부조) 함양, 노동관계의 원자화에 맞선 생산 공동체를 재창조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는 등 사업고용협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코오파남의 목표는 그들의 활동의 원동력인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기업가 정신과 전통적인 고용 노동의 대체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회원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모

05 사업고용협동조합(CAE:Coopérative d'activités et d'emploi)은 기본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SCOP:Sociétés coopératives et participatives)의 독특한 협동조합 모델로 1995년에 첫 등장한 이후 20년 만에 사회연대경제법(2014.7.31. 제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음.

06 프랑스에서 노동자협동조합(SCOP)은 유한책임회사(SARL: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또는 주식회사(SA:Société anonyme) 형태의 상회 회사이고, 사업고용협동조합(CAE)의 90%는 노동자협동조합(SCOP), 10%는 공익협동조합(SCIC)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든 프리랜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코오파남은 공동 사무 공간(co-working space)과 엑스트라넷⁰⁷을 통하여 거버넌스 참여 기회, 교육 및 동료 커뮤니티를 통한 지식 교환, 함께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Le Stranette”라고 하는 엑스트라넷은 협동조합의 내부 소셜 네트워크(창업자가 서로 토론하고 자신의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곳)이며, 창업가가 관리하는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의 포털로 코오파남 플랫폼의 핵심이다. 엑스트라넷을 통해 창업 활동(회계, 계약 등) 및 절차를 최적화 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창업가와 외부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코오파남에서 회원들은 불안정성을 피하고 함께 일하는 다른 방법을 구축할 기회를 찾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직원이나 자영업자만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종속 또는 상업적 성격의 관계보다는 사회적 유대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협력자로 스스로를 바라본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상호 역동성’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을 ‘상호 노동사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3. 벨기에, 스마트(SMart)와 유럽 네트워크

1998년에 창립된 스마트(<https://SMartbe.be>)는 벨기에 문화예술 분야의 복잡한 행정 구조에 대응하여 엔테르미탕⁰⁸ 예술인, 기술자,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으며 2016년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되었다. 창립 이후 “예술인의 전국 플랫폼(Plateforme Nationale des Artistes, PFNA)”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보장, 저작권 등 창작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낳았으며 벨기에 문화예술인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스마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다른 8개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과 회사의 네트워크이며, 전체 스마트 네트워크는 유럽 전역 37개 도시(벨기에와 프랑스에 24개)에 지부에서 35,000명의 근로자(벨기에와 프랑스에 22,000명)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다.(벨기에와 프랑스에서 1.9억 유로).

스마트는 다양한 서비스 특히 행정, 재무 및 회계 관리 서비스, 보험 서비스,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 정보 및 교육, 공동 사무 공간 및 보증 기금,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금융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프리랜서, 조직 및 기업가와 협력한다. 처음에는 예술, 창조산업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현재는 회원 수의 절반 정도가 그 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며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개방되었다. 협동조합에서 회원들은 단기 또는 개방형 고용 계약 덕분에 주주 및 급여 근로자가 된다. 스마트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사업관리(행정, 회계, 재무, 법무 등)와 창작활동을 위한 인프라(공간, 장비, 네트워크 등) 서비스, 사회보험 혜택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의 주요 서비스는 조합원들에게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관련 온라인 도구 제공이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조합원들은 맞춤형된 포털을 통해 계약을 처리하고 비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조합원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관리를 스마트에 위탁하면 스마트는 프로듀서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가 진

07 엑스트라넷(extranet)은 외부 조직의 승인된 사용자들에게 확장된 사설 인트라넷이다. 엑스트라넷은 인트라넷과 달리, 특정회사 내의 종업원들만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08 엔테르미탕은 예술가가 생계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예술가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 공연, 영화 등을 행하는 과정 즉 창작의 과정을 생산 활동으로 인정하고 소득이 없을 때 급여를 제공한다.

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컨설팅, 회계, 자원 동원 등을 지원한다. 조합원이 스마트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스마트는 계약 기간 동안 그들의 고용주가 된다. 조합원인 프리랜서가 급여를 받고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관리 프로세스를 고용주로서 관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마트는 프리랜서에게 비즈니스 관리의 자율권을 빼앗지 않고 사회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2015년 스마트 벨기에는 일부 조합원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음식 배달 플랫폼⁰⁹의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 조합원의 수가 많고 음식 배달 플랫폼이 스마트를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2016~2018년 스마트는 주요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최저 임금, 최소 근로 시간, 소득 보장, 안전 및 보안 교육)을 보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Take Eat Easy”라는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노동자를 위한 계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업체가 2016년 7월 파산하면서 임금을 체불하자 보증기금 ‘스마트펀드’에서 340,000유로를 지급하였다. 주요 배달플랫폼인 딜리버루와 스마트 사이의 이런 협력관계는 2017년 10월 종료됐다. 딜리버루는 그 후 플랫폼 노동자를 순수한 자기고용 노동자, 독립적인 계약자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런 변화에는 벨기에 정부가 2017년부터 적용한 세법 개정안의 영향이 컸다. 이 개정안은 ‘공식 승인된 플랫폼상에서 수행되는 활동들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특별세금 경감’이었다. 벨기에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자기고용 계약자 취급하는 세법 개정안으로 협력관계를 종료하는데 동기 부여를 한 셈이다. 음식 배달 플랫폼에 의해 일방적으로 협정이 종료되었지만, 스마트 네트워크의 노력은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벨기에가 시도하려고 했던 해결책은 다른 업종의 플랫폼 공급자와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최소 두 가지 이유로 가능성을 지닌 실험이었다. 우선, 종업원의 임금은 각 노동자의 실제 활동에 기초하여 산정되기에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은 동일하지 않다. 둘째로, 노동자들은 플랫폼 작업 메커니즘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활동 관리(어디, 언제, 누구 등과 함께)의 유연성을 유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은 다른 플랫폼 협동조합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초, 딜리버루(Deliveroo)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고 난 뒤 스페인의 라 파하라(La Pajara)는 고객과 소매업체,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를 연결하는 오픈소스 협동조합 플랫폼인 쿵사이클(Coopcycle)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라 파하라는 오로지 자전거와 짐 자전거로만 운영되는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쿵사이클플랫폼을 이용한 음식 배달, 장애인과 일하는 물류 협력업체인 코이키(Koiki) 프로젝트를 통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 문서, 케이터링, 에코마켓 구입품, 소규모 이사와 같은 모든 유형의 제품을 자전거로 운송하도록 설계된 택배 서비스, 교육과정과 행사 개최를 통한 자전거 물류에 대한 기술적 조언 등이다.

4. 핀란드, Lilith

Lilith(<https://www.lilith.fi/en>)는 1997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음악가와 뮤직 프로듀서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개별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대신에 프로듀서와 음악가의 합작 회사가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다. 현재는 핀란드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중에 하나로 400명 이상의 회원과 3백만 유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Lilith는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위한 업무 및 창업가 협동조합이다. 회원들이 창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관련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이 주된 목표다. 회원들은 문화, 예술, 공예, 디자인, IT,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한다. Lilith는 폭넓은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창의적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Lilith는 회원들이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자극하고, 공유와 신뢰를 장려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 의료보험, 연금 등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구성원이 되는 지속가능한 문화를 구축했다. Lilith는 회원들의 참여 속 회원들이 직원, 서브 컴퍼니, 프로젝트 매니저, 공동작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개념과 회원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다. 장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IV. 참여형 소비자과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Prosumers and 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이(집단적, 사회적, 환경적)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역 사회 수준에서 긍정적이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경제로 스스로 발전하고 있는 협동조합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리와 비영리 모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조직의 사례도 포함해서, 협동조합의 형태가 공동체의 가치 창출 과정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둘러보기

1. 이탈리아, 음식과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참여적, 지역적, 자기 조직적 협동조합

Food Coop(<http://foodcoop.film>)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참여형 협동조합 슈퍼마켓이다. 조합의 회원은 슈퍼마켓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고, 일반적인 슈퍼마켓 운영 활동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참여한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제품 할인, 제품 평가, 선택 및 구매(전용 IT 시스템 및 기술을 통

한) 및 슈퍼마켓 관리(예 : 활동 및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회원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협동 조합의 활동과 별개의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아니다. 지난 몇 년간 Food Coop과 비슷한 경험이 일부 프랑스 도시와 이탈리아(Camilla.coop)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농업 생산, 집단 공유, 직접 재배 등을 위해 만들어진 볼로냐에 아르비아 협동조합(www.arvaia.it)은 지속 가능한 유기농 식품의 재배와 선택, 구매를 공유한다. 아르비아는 다중이해당 사자 협동조합으로, 지역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공동구매그룹과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분야의 기업가 및 전문가들이 지역 공동체 경작과정에 도움을 주는데 이들도 회원이다. 이 플랫폼 모델에서 회원은 재배 과정과 어떤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동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며, 회원 자신의 소비를 위한 재배와 관련된 결정에도 참여한다.

2. 프랑스, 이동성과 협동조합 형태의 개인과 개인 간 거래시장

Rydygo(<https://www.rydygo.fr>)는 가장 잘 알려진 자동차 공유 협동조합이다. 통근처럼 당일 이동을 위한 실시간, 단거리 승차 공유(라이드 셰어링) 플랫폼이다. Rydygo 애플리케이션은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비용은 이동 거리에 따라 책정된다. 중개 수수료로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 협동조합이다.(societe cooperative et participative 또는 SCOP) Rydygo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처럼 취업을 지원하는 단체들과 협력하여,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구직자들에게 점수/포인트(credit)로 지급함으로써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Pwiic(<https://pwiic.com>)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7년에 처음 시작됐다. 개인 간 서비스와 물건의 교환을 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이다. 지역 이웃간에 개인과 개인간 서비스 교환, 전문적 서비스 소비(현지 전문가 참여)를 받거나 제공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산책을 돕는 일이나, 집안 수리, 혹은 인테리어 공사, 집안일 보조, 아이 돌봄, 정원관리 등. Pwiic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은 다양하다. Pwiic에는 75,0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80%가 프랑스에 20%는 벨기에에 있다. 다른 유럽 지역으로 네트워크의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3. 스페인, 협동적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화 및 커뮤니티 허브

Colaborabora(www.colaborabora.org)는 시민의 아이디어, 기술 및 동기를 평가하는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혁신과 문화실천 영역의 활동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이다. ColaBoraBora는 분산 네트워크와 P2P 관계의 출현에 따라 필요해진 공공재·지식·자유문화·오픈 소스·협력적실천·퍼머컬처·지역사회 개발 전반에 걸친 관계·조직·생산과 소비 등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한다. Colaborabora의 노력과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거주민들의 물리적 위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물리적 제한을 벗어난 Colaborabora의 활동은 위키토키(<http://wikitoki.org/en>)이다. 위키토키(Wikitoki)는 자체 조직한 P2P 협력 프로젝트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는 플랫폼으로, 실천·반영 및 행동·지속적 교육·연구·아이디어 창안과 구현(prototyping) 그리고 공동 창작과 협력적 실천을 하는 커뮤니티이다. 위키토키는 여러 분야의 교육을 검토하고, 시민과 조직 사이의 역동적인 공동가치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시민·조직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회·경제·도시·문화·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제안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워크숍·세미나·컨퍼런스, 각종 교육 활동과 정보활동 등을 조직하고, 모임을 촉진하고 역동성의 조화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새롭게 떠오르는 이니셔티브들에 동참하고, 출판물을 연구하고 편집하는 일을 한다.

GoiEner(www.goiener.com)는 지역 시민들의 에너지 주권 회복이 목표인 협동조합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집중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에게 친환경 전기를 팔아 얻은 모든 이익은 협동조합으로 귀속되며, 이익의 배분 방법도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조합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그 생산물은 협동조합 내에서 소비가 된다. 최종 목표는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에너지량과 조합원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전 섹션에서 우리는 유럽 전역의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이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을 협동조합에 도입하여 플랫폼 노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지 관찰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협력 및 공유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가 접근하는 방식 수정에 중점을 두는 형태를 살펴봤다. 특히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은 사용자 생산자, 운영 주체 등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협력을 하는 형태이다.

V. 플랫폼 노동과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Platform work and worker-owned cooperatives)

Doc Servizi, 코오파남, 스마트는 상당기간 교류가 없었고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하였으며, 각각 다른 방식의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용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근무 조건과 사회 보장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각자의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서로를 언급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간 협동 원칙에 근간해서 서로간의 네트워크도 다지고 있다.

플랫폼 협동주의에 바탕을 둔 협동조합 모델은 기존 디지털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직 모델 형성 그리고 노동자 참여 모두에서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Doc Servizi, 코오파남 및 스마트 벨기에의 구체적인 목적과 결과는 달랐지만, 서비스 및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선택했다. 기존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와 달리 협동조합에서 사용한 기술은 비즈니스의 핵심요소는 아니지만, 회원들의 경제 활동을 위한 지원 도구로 활용된다.

두 번째로 노동자들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고전적인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노동자가 완전히 외주화되고 고립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살펴본 코오파남과 Doc Servizi, 그리고 스마트 벨기에(배달노동자 대상)가 회원들의 대변인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VI. 소비자 플랫폼과 다중이해관계자 회사 (Consumer platforms and multi-stakeholder cooperation)

위에서 살펴본 소비자 및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중, 소비자 플랫폼과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개인(소비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직 모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위와 같은 모델은 자주관리활동, 특별히 소시오크라시(sociocracy)¹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규모로 합의와 자기운영의 원칙에 기반한 팀들이 연결된 서클 형태의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모델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예: FoodCoop, Arvaia 및 Goiener)에서는 회원들은 소시오크라시에 기반한 조직 및 거버넌스 모델에 속해있다. 따라서 핵심 사업 영역은 노동자, 사용자 및 기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혼합 그룹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집단과 개인의 목적이 모두 조직 모델에 통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개인의 역할이 서클 단위에서 결정되는 동시에 누구도 일을 강요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이 커뮤니티에 가치 공유의 진정한 비추출 모델로 보인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기존 디지털 플랫폼과 달리 관리 및 거버넌스에 지역 사용자가 참여함으로써 플랫폼의 가치가 생산되는 장소와 지역을 염두에 두게 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소비자가 “프로듀서(Producer)¹¹”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프로듀서는 사용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지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보다 책임감있게 하도록 플랫폼은 다른 수준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플랫폼과 다중 이해 관계자 회사 협동조합 구조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가 고전적인 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소비자가 플랫폼의 소유자 이기에, 소비자의 법과 권리가 존중되고 제품의 품질이 보장되며, 투명성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커뮤니티가 통합하여 혁신이 실천되도록 지원한다.

또 다른 이슈는 협동조합 모델이 소비자와 노동자가 다중 이해 관계자 조직의 운영 및 거버넌스 수준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험실로서 역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리 회사의 소비자는 그 자신과 회사에게 이익을 제공하지만 협동조합의 소비자 파트너는 소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 속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고 달성하기 위해 다른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 이 높은 수준의 참여는 협동조합에서 각 개인(공급자 혹은 소비자로서의 근로자)이 회사에 직접 관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이 협동조합에 들어 오면 민주적 지배 구조(“인.1표”)에 기반한 회사의 구성원이 되고 협동조합의 공동 소유권에 참여한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은 비즈니스가 가진 위험을 함께 나누는 기업가로서의 역할도 하기에 직원 이상이다.

10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역동적 자치(dynamic self-governance)의 원리와 방법

11 “프로듀서”는 “생산자”와 “사용자”를 결합한 합성어로, 새로운 정보 환경의 출현 속에서 동료 생산 문화에 종사하는 개인(또는 개인 그룹)을 가리킨다.

VII. 정리하는 말

운동으로서 플랫폼 협동주의는,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의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한 자주경영의 전통을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에서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이용자들이 직접 생산 및 거래 도구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자본 기여를 통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은 소수의 투자자가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소유자는 플랫폼의 실제 이용자이므로, 외부 투자 관계자처럼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플랫폼 이용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플랫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협동조합의 공동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창출된 수익의 대부분을 공동 소유 기업의 기금으로 보유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대신 플랫폼에 재투자한다. 그리고 '1인 1표'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의 형태는 플랫폼 소유자 중 누구도 자신이 기여한 자본이 더 많다는 이유로 다른 소유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플랫폼 협동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는 플랫폼의 집단적 소유를 허용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유리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노동자 집단을 재편성함으로써 공간과 노동자의 교체가능성(interchangeability), 즉 노동의 지나친 상품화와 비공식화를 막을 수 있다. 표준화된 작업뿐만 아니라 노동 공간의 분산, 사적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온디맨드(on-demand)' 원칙, 노동자들의 단결, 교체가능성 및 고립이라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은, 플랫폼 협동주의에서 집단적 관리 및 참여적 운영으로 대체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디지털 플랫폼 회사와 구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과 플랫폼 협동조합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효과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자산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지 않고 대등하게 재분배된다. Uber, Airbnb 또는 Deliveroo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를 중개함으로써 얻는 부를 플랫폼 회사가 모두 가져간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 개선을 통해 증가하는 모든 잉여 가치는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 소유주에게만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플랫폼 협동조합모델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조합원들이 소유한다. 따라서 소유자와 공급자/소비자가 일치하며, 기술의 모든 개선과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공유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비용과 자원의 공유, 부의 생성 및 재분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개를 보장하는 기술 도구로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되기에 협업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고 격리되는 우버(Uber)나 에어비엔비(Airbnb)와 같은 기존 디지털 플랫폼의 아웃소싱 및 분산 모델에 대안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은 참여자들이 플랫폼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와 제공사 모두 협력적인 활동에 관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플랫폼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기존 디지털 플랫폼의 대안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진화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Platform Capitalism(Theory Redux), Nick Srnicek
- Alternative Platforms and Societal Horizon : Characterisation and Strategies for Development, Guillaume Compain, Philippe Eynaud, Lionel Morel, Corinne Vercher-Chaptal
- PLATFORM COOPERATIVISM Challenging the Corporate Sharing Economy, Trebor Scholz
- Platform Cooperativism in Italy and in Europe, Working paper CIRIEC
- Platform Cooperativism: an international movement on the rise, Thomas Dönnebrink, Ela Kagel
- #CoopTech Platform Cooperativism as the Engine of Solidary Growth, Anna Burnicka & Jan J. Zygmuntowski
- Ours to Hack and to Own, Trebor Scholz , Nathan Schneider
-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논리에 대한 이해 (닉 스프리체, 번역-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
- Platform Co-operatives, Solving the Capital Conundrum, NESTA(플랫폼 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 번역협동조합 옮김)
- 국제노동브리프 2020년 1월호 pp.55~67 대안적 플랫폼과 작업조직, 한국노동연구원
-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경기연구원
- [신년기획Ⅳ-플랫폼경제, 길을 찾다] ①플랫폼경제를 둘러싼 5가지 이슈. 이로운넷 라현윤 기자
- [신년기획Ⅳ-플랫폼경제, 길을 찾다] ②연대와 협력으로 길 찾는다. 이로운넷 라현윤 기자
- [신년기획Ⅳ-플랫폼경제, 길을 찾다] ③플랫폼경제 부작용, 협동조합은 이렇게 푼다. 이로운넷 박유진 기자

플랫폼 협동조합 사례

이름	개요	구분	범주	활동	계층
Ag Pro Exchange	농업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재배자들이 관리하고 모든 산업서비스와 기술 공자들에게 개방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농업 데이터	생산자
Alpha Taxis	파리의 앱 택시 기사 협동조합으로 운전자 1500명	생태계	협동조합 운영 플랫폼	교통	노동자
ARK	이용자 개발자 스타트업 등에게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제공	생태계	협동조합 운영 플랫폼	금융 소프트 웨어 블록체인	노동자 투자자
Avocado Co-op	친환경적으로 회원이 시험하여 가정용품의 좀 더 나은 라이프사이클을 판매하고 연구하여 더 쉽게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소매협동조합	생태계	협동조합 운영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소비자
Digicoop	팀워크를 더 나아가지게 지원하는 온라인 협력 수단을 발전시키는 노동자 협동조합	생태계	협동조합 운영 플랫폼	소프트웨어	노동자
Doc Servizi	협동조합 플랫폼에서 조직화된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프리랜싱 마켓플레이스	생산자
Enspiral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기업들과 전문가들의 가상 및 실질 네트워크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소프트웨어 협동조합개발	생산자 노동자
FairBnB	지방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적 숙박 부킹 플랫폼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집객 클라우드펀딩	노동자
France Barter	다중 이해관계자 물물교환 플랫폼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마켓플레이스	구매자
gcoop	무료 소프트웨어 협동조합	생태계	지원자	소프트웨어	노동자
Green Taxi Cooperative	앱 기반 택시 협동조합	생태계	협동조합 운영 플랫폼	운송	노동자
HCoop	인터넷 호스팅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웹 호스팅	이용자
indycube community	자영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소유 네트워크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프리랜싱	생산자
Knowledge Atlas	교육과 학습을 위한 수단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교육	이용자
Loomio	노동자 협동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인 의사결정 플랫폼	생태계	협동조합 운영 플랫폼	거버넌스	노동자
Part-up	일시적 팀으로 사람들을 연결	생태계	협동조합 운영 플랫폼	프리랜싱 노 동 중개	노동자
The Phone Co-op	독립적인 소비자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유틸리티 텔레콤	소비자
Stocksy United	아름답고 독특하고 매우 유용한 로열티 없는 사진 모음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예술 마켓플레이스	생산자
WeHelpen	비형식적 지원을 촉진하는 운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수단과 지식공유 등을 제공 즉 이웃 간 지원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친구와 가족 간 도움을 지원하는 앱 특정 그룹을 위한 온라인 수단 등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헬스케어	이용자
Work Hard Pittsburgh	디지털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으로 인해 능력과 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모든 규모의 사업지원	생태계	지원자	금융 협동조합 개발	비즈니스

network of Ownership 홈페이지 <https://ioo.coop> 에서 발췌 /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경기연구원

플랫폼	목적	지위	수입원
Les Oiseaux De Passage	연대 관광(Solidarity tourism) 목적지 팩토리(destination factory, 집단지성이라는 혁신적 과정 덕분에 현지 이야기의 공동생산과 접대와 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 방식)와 여행 팩토리(travel factory, 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공유 플랫폼)	공익협동조합 (SCIC)	연대 기반 재정 및 가입비
Coop Cycle	자전거 배달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자전거 배달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open-source)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원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유권을 공유하고 스스로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생성하며 상호 사회적 보호(mutual social protection)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협회	연대 기반 재정 - 배달원 및 협동조합 개별 가입. 상호화된 기여(mutualised contributions)
Rydlgo	승차공유 서비스 통근과 같은 당일 이동을 위한 실시간, 단거리 승차공유(라이드 셰어링) 플랫폼. Rydlgo 어플리케이션은 가상통화(virtual money)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비용은 이동 거리에 따라 책정됨.	노동자협동조합 (SCOP)	중개 수수료 및 연대 기반 재정
Mobicoop	무료 승차공유 협동조합적, 시민적, 생태적, 연대 기반 플랫폼. 이 협동조합은 승차공유 및 개인 간 차량공유, 건강상 이유나 디지털 격차 또는 지리적 격차의 이유로 이동 공유 접근성이 없는 이들을 위한 연대 교통이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	공익협동조합 (SCIC)	연대 기반 재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 기부금
Open Food France	식품 유통 단계 단축 프랑스 내에서 식품 유통단계를 단축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둠. 이 플랫폼은 제안 일람표, 상품 카탈로그, 온라인 매장, 온라인 결제, 청구서 작성 발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공익협동조합 (SCIC) & 협회	연대 기반 재정 - 가입비
ID Lab	공평한 문화 스트리밍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 공유를 통해 이러한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창작자에게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공익협동조합 (SCIC)	가입비 - 사적, 사회적 재정
Pwiic	개인간 서비스와 물건의 교환 지역 주체들의 P2P 서비스 교환, 전문적 서비스 소비(현지 전문가 이용), 비용 분담(승차공유, 공동 텃밭 등) 또는 물건의 교환, 기증이나 상호화를 가능케 하는 유럽 차원의 플랫폼	벨기에 법을 적용받는 협동조합	연대 기반 재정 -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 중개수수료는 없으며, 출판수수료는 자체 가상통화로 지급함.
France Barter	B2B 교환 네트워크 기업이 가상통화인 '바터 유로(Barter Euro)'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B2B 교환 플랫폼	공익협동조합 (SCIC)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Framasoft	무료 소프트웨어 옹호 교육을 위한 협회	협회	연대 기반 재정(기부금)

TAPAS - There Are Platforms as Alternatives 에서 발췌

SVS 인사이트 01

플랫폼협동주의

Platform Cooperativism

연구자 양석원(자유학교 공동설립자)
발행일 2020년 5월 19일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주 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6층
전 화 02-2088-3288
메 일 info@svsfund.org
홈페이지 www.svsfund.org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